

I 머릿말

"새로운 세계질서"의 저자 폴 에킨스는 오늘날 세계의 문제로서 ① 군사화와 전쟁의 위험 ② 환경파괴의 위험, ③ 인권탄압 ④ 환경파괴를 들고 있다. 그는 이 문제들을 서로 맞물려 있으며 환경과 직결되어 있고 이들의 해결은 개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전쟁은 빈곤과 환경파괴 그리고 인권탄압 현상을 초래하며, 빈곤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인권탄압에 대한 반발을 이끄는 데, 환경파괴는 빈곤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의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냉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세계는 지금 80년대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21세기를 향해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새로운 인류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환경보전을 들고 있다.

60년대의 동양의 핵위협을 파헤친 "침묵의 봄"과 70년대의 록클롭의 "성장이 함께" 보고가 인류에게 충격을 안겨준 이래 이상기후에 의한 천재와 해루노반 원전사고와 폐미생물 등의 인재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70년대는 해도 뒤집어 밀려왔던 환경문제가 이제는 국제정치 현상이 우선순위에 자리하게 되었다.

72년의 스톡홀름 회의와 92년의 리우회의를 포함해서 그 후 주요 회의들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계획들이 세워지며 인류복지에 위한 지평들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함께"의 후속편인 "한계마후"에서는 "지구환경문제"는 20년전 스톡홀름 인간환경 회의 이후 더욱 악화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부라질의 지구정상 회의 기간인 12일간에도 300만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1,680,000대의 차량이 반출되었고 2,160평방마일의 산림이 사라지고 144,000배럴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었는가 하면 4억5천6백만 파운드의 쓰레기가 바다에 투기되었다. 또한 6억7천2백만톤의 탄산가스나 18,000톤의 CFCs가 대기권에 방출되었고 최소한 312,000 어린이가 기아등으로 죽어갔는데 같은 기간에 세계의 군사비로 지출된 3,000억불이 적절하게 쓰여졌더라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구정상회의" 아담스 리뷰스)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이상 회색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누구나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항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 경제, 사회구조 및 체제가 「남북간의 이해대립」과 「각국가간의 이해대립」이라는 장벽을 띄워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UNEP의 사무총장인 모스타파 토티가 "부라질 회의가

인류가 생존할수 있는가 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그 회의의 논의에서조차 지구환경위기 극복의 핵심문제들이 배치된 것에서도 짐작할수 있다.

오는 6월초에 영국이 맨체스터에서 또 하나의 국제환경회의인 "지구토론 '94"가 개최될 예정이다. 리우회의 이후 2년간 우리는 UR 나 G77 등의 치열한 국제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서 예견되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남북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오는 지구행회의 구조 및 체제의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개혁에의 정책적 전망을 과학적으로 제시할수 있는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확립과 발전문제가 21세기의 기본과제라고 본다" 라고 "지구환경문제의 정치경제학"의 저자 테라비시 웅이씨가 지적하고 있거나 집단간의 국가간의 의견대립이 단순한 견해차이가 아니라 해결책의 구체화에 따르는 정치경제학적 제반이해의 대립이며 때문에 지구문제 해결에는 사회과학적인 고찰로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들에서는 단지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적인 쟁점과 리우에서 맨체스터까지의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향해 걸어온 발전취를 더듬으며 문제해결의 걸림돌을 짚어보는데 골인하는 것을 밝힌다.

II 오늘이 지구환경문제

1)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책

현재 국제회의 의제에 올라있는 지구환경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하며 테라비시와 지구규모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문제들이다. 국제화되어가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파괴행위에 따른 문제분석과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테라비시 웅이씨가 구분한 5개 행으로 나누어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형평형의 광역환경오염 평형으로서 북미나 자라파메리의 국제환경분쟁의 구도로 나타나고 있는 「산성우」 문제와 우주대륙을 흐르고 있는 라인강 등의 「국제하천수질오염」 등이 전형적인 예가 될수 있다. 이런 경우 환경상의 어떤 공동이익(하천의 수질개선)이 관련 국가들의 국가이익을 우선하게 하는 관계성립으로 타협이 가능해 진다. 「국가이익간의 대립」을 「지역공동이익대 국가이익」 구도에서 문제 해결의 타결점이 된 이 사례는 새로 구축되는 국제관계의 기본원리로써 중요한 점이다.

② 공해수출에 의한 환경파괴행 으 특히 70년대 이후 환경규제가 엄격해진 선진국에서 규제가 누락한 도상국에로의 기업진출과 직접투자를 통해서 대도시 지역에서 처리가 어려워진 폐기물 수출에 의한 것들로서 선진국의 책임이 큰 파괴행이다. 「국제격차」 「비용격차」가 발생원인인 이 구조를 활용하는 것은 주로 다국적기업이다. 이것은 환경피해의 「사회비용」 즉 환경책임을 무시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경제체제 구축과 일개국가 (또는 UN) 를 능가하는 정치경제적 위력으로 비대해진 다국적기업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③ 국제분업을 통한 자원과 환경의 수탈을 통해서 천연자원의 과다채취 및 소비와 인공적인 무역부 편익분이 국제무역의 구조와 체계에서 비롯되는 우월우선으로 환경파괴는 물론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게 한다. 소위 알테라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나 지구공동이익이라는 점에서 환경보전행위 새로운 국제질서와 무역기구의 개혁 등을 화두로 다루는 문제이다.

④ 빈곤과 환경파괴의 악순환적 진행을 이것도 ③의 우월우선 정책현상이기도 한 지역생태계파괴(사하라 사막)의 경우를 말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만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역사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 산물로서 앞으로 환경난민을 증대시킬 요인이 되고 있다. 해결책으로써는 지역생태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국들의 선진국 주권행위 확대와 정책의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⑤ 지구 공동자원의 오용과 파괴를 통해서 바로 지구환경파괴를 지칭하는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 등에서 보는 문제이다. 이것은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 인류의 공동사이며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국제평화의 중심이제로 급부상 하였다. 그러나 국가간의 극심한 이해대립으로 문제해결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해결의 실마리는 현재 국제연락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인간단체들의 활동에 의하여 갈라져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환경에 대한 윤리관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2) 21세기의 정치경제학의 쟁점

이상의 살펴본 우월우선의 지구환경문제는 서로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것은 모든 지구사회의 국제관계 형성을 개혁하여 새로운 관계형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문제」는 「관계문제」이므로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된다.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사무총장인 무리스 스톨롬이 "지구정상회의는 빈부의 불균형과 함께 21세기의 주요리제인 빈곤과 환경의 새로운 논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현재대에 지구촌을 발전시킬 데에 대한 우리의 최우선의 의무이다"라고 한 말에서도 우리는 빈부간의 그리고 국가간의 격차해소가 관계를 바로 잡는 일의 기본리제임을 알 수 있다.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지구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위 20%의 자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80%의 인구는 생계를 위해 또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빈부간의 또는 국가간의 이해대립이 첨예해지기 마련이다.

리우회의의 채택된 주장은 지난 수십년에 걸친 제3세계의 개발이 남긴 것은 천연자원과 금융자원이 더가 부족의 선진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에게도 막대한 재부와 환경파괴 그리고 심각한 빈곤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윽기에 책임은 선진공업들에게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한 환경보전의 책임을 그들이 보다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북쪽의 환경 개발과도 함께 인접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야 하며 남쪽의 선진국 주동형 정책의 방향도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쪽은 「지구공동리사」에 대한 자연 관리권이 국가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돌려질때 북쪽국가들(특히 다국적기업)로부터 천연 자원을 지배받게 된다는 것이다. (「제3세계 네트워크」의 위기로 생명문에서 일부 간추림) 리우에서의 남쪽의 구체적인 요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문제였다.

여기에 대한 북쪽의 반응은 기후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생활양식을 고집하고 (부식대통령은 생활수준은 향상대상이 될수 없다고 함) 선진국들이 초대국익에서 출발한 양육양식의 「힘의 논리」의 위대성을 주장하며 선진국의 경제성장 있는 환경보전책에 대한 재정과 기술은 없다고 강변한다. 리우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위세 강대함도 이런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쪽은 또한 도상국에서 호지레도, 계층분열, 인구폭증 등 여러 정책의 정비없이 받은 「공적 발전 지원금」을 산입파리를 조장하는 개발, 정치자금, 소수부족을 위한, 또는 군사비 등으로 유용한 시스템은 지구 전체 도상국의 책임과 의무를 떠넘긴다.

북쪽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책임이행을 쉽게 하지 못해 있는 이유 중에는 남북대립구조가 아닌 선진국들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자국내의 경제침체와 실업률감축이 우선제인 미국의 사정,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우리와 가까운 여권하에 있는 독일은 동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데서, 그리고 지구정상회의에서 높은것을 약속한 일본의 경우 그 약속을 지키기에는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도 아직 더느리 못해 있는 상황들이 그것이다.

한편 국제 정치 경제 구조를 체계에 의해 날로 악화 일로에 있는 남북간의 격차는 각국간의 격차는 더하여서 대립정상으로 나빠서 이런 추세로 나가려는 동서냉전에서 남북대립으로 이전되어 드디어는 핵전쟁이 아닌 지구환경의 보복으로 인류는 파멸의 위기에 있다는 것 지평에 이르렀다.

III 리우에서의 변화는 더 가라

세계의 이목을 총집중 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던 92년의 유엔 환경리 개발회의(이하 리우회의 라고 함)는 그 회의의 규모로 보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그 당시 관심의 정도로 보나 지구시민이 거의 기대는 대단했다. 리우회의가 바로 지구환경문제해결의 필레마의 탈출구가 될것이며 지구환경정책의 대전환을 갖는다 곧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이회의 역시 「남북대립」 그리고 「국가간의 대립」의 회의로 막을 내렸다. 그만큼 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리우회의에서 배제된 의제들로 리우회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 스톡홀름에서 리우로

92년의 리우회의 바로는 92년의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이하 스톡홀름 회의라고 함)이다. 스톡홀름 회의의 리우가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였던 것에 대해 리우회의는 인간이 개발인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였다. 20년이란 세월을 두고 이 두 회의는 크게 변화한 국제정치 분위기에서 개최되었다. 스톡홀름 회의는 냉전체제하의 핵의 위협속에서 소련방과 동주의 위상국들이 불합한 가운데서 있었으나 리우회의는 동서문제로 부터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반면에 스톡홀름 회의는 도상국들이 회의자체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에 비해 리우회의의 도상국들(57개)의 강한 주장은 남북대결로 치닫게 했다.

스톡홀름 회의의 주요성라들은 유엔환경기구(UNEP)주임, 세계 115개국의 환경행령기구원칙 및 환경관련 법제정 추진, 「환경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일명 부룬트란트 위원회) 주임과 "우리의 공동 미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 하고 92년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 회의 개최를 주도해 낸것을 들수 있다. 「의제 21」의 내용등을 협상해 내야 했던 리우회의 준비에 투입한 노력의 대가로 조성과를 기대했던 리우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과 「생물종 다양성 보호 협약」이 체결되었고 「산림보호원칙」 「리우선언문」 그리고 「의제 21」의 원칙 합의에 머물렀다. 그러나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에 「지속 개발 위원회」(CSD)가 설치되어 앞으로 「의제 21」의 실현사항 들은 점점하게 되어있다. 여기에 따라 캐나다에 이어 미국이 93년 6월 유엔의 지속개발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정부, 기업, 환경단체 대표들로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이 문제를 협력해나 추진하는데 이르렀다.

리우회의가 스톡홀름 회의의 연장으로 간주되는 것은 회의를 주관하는 인적 구성원이 같은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개혁을 비껴가고 있는 부룬트란트 위원회의 지구환경보전의 정책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점에서 이다. 리우회의가 진일보하기 못한 환경 회의였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로 여기에 있다.

2) 리우 회의에 대한 평가

최근에 발표된 "지구 생태계" (월루강 작스판)의 서론에서 보면 리우회의가 성공이였다는 사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으로써 만족한다는 것이나 상당수는 아주 실패한 것으로 보다는 것이다. 성공적이었다는 점은 이 회의가 생태계 파괴의 위협에 대한 세계의 국가정당들의 공감대를 공고히 했을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연락을 넓게 제고시킬수 있었으며 「선언문」과 「의제 21」을 통해서 국제 협력의 협상선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 반면 실패한 간주하는 쪽은 무엇보다도 지구환경을 오늘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온 원인에 대한 발생과 정책경제학적인 접근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실패의

요인을 지극정상화하여 예시치에 대한 처리를 예시치 찾고 있다.

실제로 보는 경제정책은 보나 신랄한 평가가 있다. 나리아스 평자의 "유엔환경개발
개발회의의 리포트에서 이 정책(정책)"이란 글에서 리우회의가 실패했다고 보는 몇가지
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아직도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에 집착한 것은 이런
경제성장을 환경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는 국가정부들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사
로 만기하고 있으며 결국 그일제 임무는 개발이 귀재들이 다국적기업에게 넘어가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각한다. 이발상은 냉전체제하에서 주형된 "우리의 공동미래"
에 의한 것으로서 80년대의 핵위협을 국가정당들의 대항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
했다는 선점점을 모델로 하고 있는 점을 공격한다. 지구환경문제는 핵문제와는
달리 그 해결을 지역주간의 힘에없이 불능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강요한다.
② 리우회의는 ①의 입장을 확보해 내기 위한 지원체력을 넓히기 위해 모든 민간단체
들을 준비리포트에 끌어 드림으로서 그들의 의도한바를 성취한 반면 지구환경문제해결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담당해야 할 환경문제의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킨것을 지적한다. 지구정상회의의 결의리포트에서 민간단체
들을 완전화란 시킴으로서 일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못하도록 하는것이 바로 이들의
이윤한것에 불리하다는 것을 입증한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③ 관리리기에 따라서는
환경개발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 포리로 일관된 리우회의
는 발전주의자들에게 지름길로 하고 있는 대로 개발을 계속 추진할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해 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illegible]

이 현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한평생을 해나갔던
전통적인 지구정신주의의 「리우 선언문」과 「의제 21」의
독자적인 「지구 의제」와 「의제 21」을 준비하여 57명
22명이 제정된 대체 협약에는 지구정신주의에서 배제된

227. 제3회 대외 협약 및 지구공동회의에의 배려

1014 2L 0121 2

기업의 1/4이 세계의 생산자산, 70%의 국제무역, 80% 금융거래를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조직이다. 지구환경 정책 기업에 대해 리우회의는 국제는 고사하고 지구환경

다국적 기업은 시가 높았다. 국제상공회의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
행동헌장(BCS D)은 리우회의의 주류준비 회의에서 「리우선언문」과 「의제 21」에
다국적 기업을 국제화한 어떤 문구도 포함하지 않도록 준비를 강요하게 했다고 알려져
있다. 스웨덴 정부로 하여금 다국적 기업의 환경비용을 내부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철저하게 한바도 있다. 리우회의는 다국적 기업에게 환경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는 셈이다.

② 인구의 위상 문제: 자연환경이 92년도 지구감시보고는 인공위성 문제와 인구

성장과 발전 그리고 환경문제가 직결되어 있다고 했고 유엔인구기금의 92년도 세계인구
행세도 빈곤과 노면이 집중되고 있음을 경고했으니 지구환경회의 92년도 지구개발 회의도
2060 년에는 10억의 인구가 식량부족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가 있었던 것이
미국과 리우회의에서 인구문제가 각국의 식량자급대책이 크게 다루어 질것으로 예상했
으니 빛나갔다. 인구문제도 바티칸과 모스크바의 주의를 끌기 업력에 의해 동업개발에
관한 문제도 지류무엇이 거센바람에 밀려 좌절되었다. 리우회의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켜 주었다는 것은 다음에 제네바에서도 GATT의 임원들이 동에 리우회의의 성과를 상의
하고는 남을 겸손을 할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리우 회의 정신이다.

③ 군사문제 및 핵사용문제: 전쟁과 분쟁이 환경파괴의 촉매의 요인이므로 군사비
가 지구의 환경복구비용도달의 최대의 장애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호라리부분을
「의제 21」을 위한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 또한 환경정책으로 다국적인
인 핵사용문제, 핵무기실험문제, 무력확장문제등도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④ 「의제 21」의 협약 및 합의사항의 실행성 확보문제: 결의된 사항들에 대한
실행여지의 표명이라고 할수 있는 기한과 규모 그리고 정책문제, 단속국이 제안한 「보편
적목표」 및 ODA 관련문제등에 관한 분명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비록 선진국들
이 GNP의 0.7% (현재 0.35%)의 지원금을 부담한다라 해도 「의제 21」이 발효된
하는 년 6.000억불 중의 1.250억불에 불과하며 나머지 4.750억불은 개도국의 GNP 8%
에 해당하는 불균형 문제로 논의된바 있다.

⑤ 리우 결의사항에 대한 구속력 문제: 리우회의에서와 앞으로 계속 국제협약들이
만들어질 상황에서 이들을 위반하거나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과 같이 국가주권에 대한 유엔의 약한 기능으로서도 관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
리의 법률가인 아베디오 토스테리오네가 제안한바 있는 환경관련 국제사법기구를
유엔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제의도 검토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지구온난화문제, 화학오염물질문제, 채굴문제, 자중무양 문제, 사막화
문제, 경제불균형 문제, 대체협약을 미루는 기업부문의 제언등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남북간의, 동북간의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가
결린 부분은 모두 제외된 사항을 확인하는 셈이다.

4) 유엔기구 총점점의 필요성

지구환경문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지점마다 다른 총합적인 리우, 경제, 사회
적 구조와 체제로는 이해관계가 불가하다는 것은 더 심층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유엔이 우선해야 할일은 지점마다 선진국들이 주도로 조직되어 운영되어온 세계은행을
비롯해서 IMF, GATT, GEF, 그리고 OECD등이 경제관련기구를 성숙한
환경관련기구는 WHO, FAO, UNICEF, UNEP, UNDP등을 재점점 해서
「하나의 지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구조체제로 개혁
해야 하며 지구 환경에 대한 정책화 대책을 위해 환경리학과 기술추진위원

회 그리고 환경정보, 정보기기도 심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한다.

5) 맨체스터 지구문헌 '94에 거는 기대

오늘(6월 24일)에서 28일까지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도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주제하에 세계의 50개 도시의 지방정부, 의회, 기업체, 민간단체 대표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생태권과 관련한 관계가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열리게 된다. 이토록은 리우회의 이후 주엔의 지속개발위원회가 마련하는 첫 국제회의로서 맨체스터 시와 제네바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미래 센터"가 공동주최하는 것이다. 이토록에서 논의할 주제들은 ① 도시빈민 ② 도시취업과 생계 ③ 정부기능과 행정관계 ④ 도시환경과 건강 ⑤ 자원과 도시 ⑥ 사람과 지역 ⑦ 교통과 통신 등으로서 회의결과도 지속개발위원회에 제출되어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대를 대비해서 국제적인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지구문헌 '94」가 준비하기 초의 실행행동의 심장부였으며 일찍부터 도시환경 리우 회 관련담당자의 전의장이기도 한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이토록은 스톡홀름이나 리우회의에 비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토록은 지방정부, 기업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서로를 찾아오는 것이라 지역에서 실행가능한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즉 시민사회에서 「회제 2」를 실행할 하는데 있다고 본다.

오늘날 많은 환경인들이 지구환경보호는 국가정부나 다보 임박대중과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토록은 의미가 크다. 이들이야말로 말로 말로만 이념 행동으로 일을 해낼수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이토록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스톡홀름에서 벗어나기 못하는 한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을 수 있는 점을 지적해 준다.

IV 리우 이후의 민간환경 단체의 우선 과제

지구문헌 앞에서 교육상대에 바뀐 현재대의 문제해결을 비롯해서 권리주장을 할수없는 미래세대와 대변리로서 등의 환경민간단체(이하 NGO라고 함)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NGO의 힘은 국제, 국적, 계층, 계급의 장벽을 넘어서 언제, 무슨 그리고 행동이 가능하면 국익에 대입없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목표를 설정할수 있는데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지구환경을 거둬들여, 예로써, 정책추진주체, 국내외적인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환경의 어려운 상황에서 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현명한 업적을 남겼다.

주엔환경과 개발회의는 NGO의 협력을 얻기 위해 90년 6월 국제추진위원회(IFC)라는 이름으로 NGO의 연립수석소를 설치하고 NGO로 하여금 리우회의의 과정에 참여시켰다. 오늘날에서는 NGO를 하나로 생각하기에는 내부가 복잡해 졌다. 국제추진위원회는 모든 비정부조직을 NGO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중에는 연구기관, 기업관련기관, 노동조합, 심지어 기업이 자체의

이와 대변을 위한 전위대로서 NCTO도 포함되어 있어 비정부단체인 NCTO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리우회의 이후 특히 노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위 NCTO 관련 사항 특히 NCTO가 생긴 문제이다. 이것은 참여를 통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으며 리우회의에서 부분적으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인력, 자력, 영향력이 적어서 NCTO의 채택과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인력은 계속되는 개개 접하게 되어 NCTO 자체의 채택과 관련 부분은 NCTO 자체의 채택과에 대해 위장하는 지식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환경운동의 몇몇의 후생과 관련해서도 크게 변해왔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세계의 국가정당들, 기업가들, 기술인들, 생산인들 등을 포함하는 누구나 환경보전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누가 환경을 위해선 더 나은가 문제이다. 이런 입장의 환경보호를 주장하는가 문제이다. 환경 NCTO들은 이제 전세계의 후원자를 의식하는 나머지 단거리의 안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정부와 이윤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환경보전 행위의 채택을 이루기 시작한다. 앞으로의 환경운동을 이런 입장에서 어떤 시작을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구환경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리우 지구포럼에서 서명한 대체협약들을 성실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장애물들을 특히 더 넘을 수 있는 지구사회구조 및 체계를 개혁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V 맺는 말

전세계의 미래세대들을 포함하는 전인류가 기술발전은 환경보전행의 지구사회건설의 길에 힘쓰고도 반드시 것을 재삼 확인하는데 갈랐다. 국제기구 중앙정부의 내부적 책임이나 국제회의의 말잔치에서 생기는 기능은 더더욱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자연속에 발을 부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구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환경의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서만이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모두는 책임을 느낀다.

「하나의 지구」를 위한 「하나의 세계」 정신으로 서로 더욱 해야 하는 과제로서 우리의 동참하는 노력을 촉구한다.

이종환 선생님께!

주제에 해당하는 글도 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겼는데 표집 리듬에서 저의 체면을 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미안합니다.

귀하를 후원 0223-572405를 전하십시오.